

## 더 나은 세상을 꿈꾼 한 세대의 초상

《오래된 정원(상·하)》 펴낸 황석영씨

소설가 황석영씨가 글쓰기의 유배지에서 풀려나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을 들고 귀향했다. 이 작품은 더 나은 삶을 꿈꾼 한 세대의 초상화다. 두 주인공의 내면의식을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작품은 시대와 역사에 휩쓸려버린 개인을 통해 세계를 보려는 작가의 문학관이 녹아 있다.



황석영씨

“글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 산 것만큼만 나온다고 나는 믿고 있다... 자, 문학을 걸어치우자. 문학을 잊어버리자는 거야. 그 녀석을 뒷전에다 꿩개쳐 두자는 거다. 그놈의 눈알까지를 눈이 빨개지도록 들여다보고 그놈의 냄새나는 입에 입맞춤해 들어붙어 있지 말고 그냥 놔둬버려. 녀석은 쓸쓸해지겠지. 그리고 사노라면 언젠가 그놈이 네 등을 툭 칠 거다. 이봐, 나 아직두 여기 있네. 응 그래 거기 있었냐. 내버려 둔 동안 성숙해진 녀석의 객관적인 실체를 너는 발견하게 될 거다.”

### “문학이 이제야 내 등덜미를 잡았다”

지난 1980년대 중반, 소설가 황석영씨(57)가 ‘문학에 뜻을 둔 아우에게’ 준 글(《일과 삶의 조건》)의 한 대목이다. 《무기의 그늘》 이후 10여년 동안 모국어와 글쓰기에서 ‘유배’됐다 최근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상·하)》(창작과비평사)을 들고 문학으로 ‘귀환’한 그에게 이 말은 마치 ‘문학적 알리바이’처럼 들린다.



창작과비평사/A5신/320면 내외/각 7500원

“저는 평생을 문학에 바쳐온 사람입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문학 바깥에서 판짓으로 세월을 보냈지만, 그때도 여전히 작가로서 행동했습니다. 작가로서 사회에 봉사해온 셈이죠. 다만 그 기간이 좀 길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뒷전으로 미뤄뒀던 문학이 이제야 등덜미를 잡은 셈입니다.”

1989년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초청으로 방북, 베를린 등지로의 망명,

93년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98년 석방한 작가의 ‘사회봉사’ 기록치고는 극적이지만, 그만큼 시대의 부름에 충실했다는 증빙자료기도 하다. 하지만 문학을 내버려둔 동안 그는 더 깊고 성숙해졌다.

“저의 문학세계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실주의적인 삶과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원칙 말입니다. 하지만 양식적 풍부화는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지난 시대를 표현하려 할 때도 예전처럼 객관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체와 양식을 실험할 생각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추구한 세대의 초상”이다. 70년대 말 지하조직에서 활동하던 오현우는 도피생활 과정에서 시골학교 미술교사 한윤희의 도움을 받는다. 그들은 한적한 시골 갈피에서 6개월여 동안 지내면서 서로 사랑에 빠진다. 갈피를 떠나 동지를 규합하던 중 검거된 오현우는 18년 동안 감옥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

만기출옥 후 오현우는 갈피를 찾아간다. 그는 한윤희가 남긴 기록을 통해 80년대 이후 험난한 시대를 건너온 그녀의 삶과 죽음을

미주한다. 한윤희는 오현우의 딸을 키우면서 미술공부를 계속하지만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오현우와 한윤희의 교차적 서술방식으로 짜인 이 작품은 시대의 물결 속에 휩쓸린 개인을 통해 세계를 보려는 작가의 문학관이 녹아 있다.

“하찮은 개인의 삶의 편린으로 시대나 역사를 보고 싶었습니다. 두 인물의 내면의식을 따라가면서 조직이나 도덕의 이름으로 억압됐던 지난 시대를 되살리려고 한 거죠. 두 인물을 화자로 내세워 대화하듯이 꾸민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유토피아의 환멸 넘어서 모성으로 회귀

이 작품의 제목 ‘오래된 정원’은 일종의 반어법이다. 그것은 혁명가들이 꿈꾸는 이상향이기도 하지만, ‘붕괴된 유토피아에 대한 쓸쓸한 환멸’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윤희의 말을 빌리면, “수컷들의 삭막하고 쓸쓸한 갈등과 변민의 시대”였던 근대(남성적 혁명주의)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낳아 기른 자”인 모성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근대문명은 기본적으로 어머니(모성)가 빠진 문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방에 유폐된 수컷들의 세계였습니다. 근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모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물결에 휩쓸린 한윤희의 삶과 죽음을 빌어 모성의 위대함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놓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양식과 만날 것인가 하는 황씨의 오랜 숙원은 현재 집필중인 《손님》에서 형상화된다. 황해도 신천에서 50여일 동안 벌어진 양민학살의 악몽을 우리 곁 열두마당에 담을 이 작품에서 그는 서양 ‘손님’(제국주의)이 제3세계에서 저지른 피의 살육을 통해 아시아의 20세기를 되돌아볼 예정이다. - 박천홍 기자